

중소기업 절반 “제조 공정 AI 도입 필요”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AI 도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10곳 중 약 5곳이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AI 도입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4%가 제조 공정 AI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통’을 포함하면 AI 도입 필요성을 체감하는 비율은 78.5%에 달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이 기초(38.8%)에서 고도화(58.4%)로 높을수록 AI 도입 필요성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AI 도입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품질 관리(33.9%), 생산 최적화(32.3%), 공정 자동화(31.9%) 순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머신 비전을 통한 실시간 불량 검출·원인 분석 △생산 데이터 기반 공정 최적화 △피지컬AI를 활용한 조립·이송·적재 자동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AI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비용 부담(44.2%)과 전문인력 부족(20.5%)으로 나타났다. 실제 AI 도입을 위한 투자 의향 금액은 1억 원 이하가 68.9%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54.6%는 정부가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AI팩토리)을 신설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AI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72.3%), AI 전문 컨설팅(21.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공장을 실제 활용 중인 기업은 77.1%에 달했으며, 활용 만족도는 생산성 증가(42%), 작업환경·산업안전 개선(36.1%), 재고·공급망 관리 효율성(2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운영 어려움으로는 전문 운영인력 부족(43.8%)과 높은 유지관리 비용(25.9%)이 꼽혔다.

제조 공정 데이터 수집·활용 현황도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64.5%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58.3%가 이를 활

용·분석하고 있었으며, 스마트공장 수준이 높거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 활용률이 높았다. 데이터 활용 어려움으로는 인력 부족(50.4%), 설비 노후화·현장과 시스템 괴리(28.5%), 유지관리 비용 부담(24.7%)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활용도와 데이터 활용 현황은 기업별 편차가 크므로, AI 도입 지원과 함께 기초 디지털 전환 지원도 병행하는 두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AI 도입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와 협력해 AI 패권 시대 대한민국 제조혁신을 중소기업이 선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북전주농협은 20일, 북전주 지역에서 수확한 신선하고 당도 높은 배 약 50톤을 대만으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북전주농협은 20일, 북전주 지역에서 수확한 신선하고 당도 높은 배 약 50톤을 대만으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북전주 배 올해 첫 대만 수출

북전주농협, 50톤 선적... 글로벌 과일 시장 진출 ‘청신호’

북전주농협은 20일, 북전주 지역에서 수확한 신선하고 당도 높은 배 약 50톤을 대만으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하는 2025년 대만향 첫 물량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의 서막을 알리는 뜻깊은 성과다.

이번에 수출된 배는 북전주농협 관내 농가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정성껏 재배된 고품질 과일로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윤기 나는 외관이 특징이다.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산 명품 배로 인지도가 높아, 매년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만 시장은 과일 품질에 까다로운 소비자층으로 유명한 만큼, 이번 수출은 전북산 농산물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로 평가된다.

이우광 조합장은 “우리 지역에서 정성껏 키운 배가 세계 시장에서 또 품질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과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전주농협은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선진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네이버, 농촌체험 상품 안내·예약 시범서비스 운영

농촌에서 휴를 받고, 작물을 수확하며 자연을 체험하는 “농촌체험”이 한층 가까워진다.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손잡고 ‘농촌체험 상품 안내·예약 시범서비스’를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검색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형 플랫폼 서비스로, 농촌관광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 ‘프로그램’ 탭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제철 농산물 수확, 동물 교감, 곤충 표본 체험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다.

이들 농장은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농촌교육농장 및 치유농업 시설로, 안전하고 품질 높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우수 체험 농장을 선정, 네이버 플레이스 개발팀과 함께 온라인 예약·홍보 시스템 구축과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체험 상품 예약 서비스 등록을 지원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기간 동안 농촌진흥청은 참여 농가의 만족도, 이용자 반응, 예약 추이 등을 분석해 서비스 개선 및 향후 전국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영·호남 도시재생, 함께 성장·성공 공유

영호남 도시재생 교류 워크숍 개최... 상생 협력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는 20일 정읍시 컨퍼런스센터와 도시재생 현장 일원에서 ‘2025년 영·호남 도시재생 교류 워크숍’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성북도에서 열린 2024년 영·호남 초청 워크숍의 결실을 잇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영호남 지역의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과 광역·기초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3년간의 도시재생 성과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의 발판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우수사례 중심의 영호남 발표 세션’과 ‘정읍시 도시재생 현장 견학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을 논의하며, 현장감 넘치는 교류와 생생한 아이디어의 향연을 펼쳤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양주성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의 소중한 성과를 함께 배우고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테크노파크·한전KPS, 부안군 그린수소생산 기반시설 구축 위한 협약 체결

전북테크노파크는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과제인 ‘1MW급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전KPS와 그린수소 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국내 최대 전력설비 운영·유지보수 전문기관으로,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운영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군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더 속

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풍력·태양광 등)을 활용해 1MW급 수전해 기반의 친환경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생산·저장·활용’이 연계된 통합형 수소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의 그린수소 산업 거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향후 부안군을 중심으로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부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부안=김석진 기자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 대상 수상

농촌진흥청은 원예·특용작물 분야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7 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우리 품종의 재배 확산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는 우수 작목반·연구회·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 단체들은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품종을 재배·출하하며,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상(국무총리상)은 충남 논산의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다.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아산배연구회(충남 아산시) △영천국내산품종사과연구회(경북 영천시) △고창군수박연합회(전북 고창군)가 선정됐다.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연천고려인산영농조합법인(경기 연천군) △청주시딸기연구회(충북 청주시) △익산딸기연구회(전북 익산시)가 각각 받

았다.

올해 대상을 차지한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1999년 조직)은 2014년 농업인이 출자에 설립한 전국 최초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생산·유통관리와 고품질 수박 생산에 힘써왔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뛰어난 수박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었으며, ‘차별정산제’ 도입을 통해 생산자 간 건전한 경쟁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또한 수박 가격 하락 시 자조금을 활용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논산농업대학 내 ‘수박학과’ 개설을 제안·운영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충청남도 최고기술농업인’으로 선정된 연구원들이 후계농 대상 실질적 재배·경영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오상근기자

